

# 유통업계 여전히 코로나 '혹한'... "부담금·규제 개선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매유통업계의 어려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5'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3분기 '82'에 비해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뚜렷한 반등 신호는 없었다. RBSI가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경기호전 전망, 미달하면 경기악화 전망을 뜻한다.

업태별로 보면 소매유통업체 중 온라인·홈쇼핑 업종만이 유일하게 100을 넘기며 반등을 기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난 분기에 이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으며,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지난 분기 상승세를 유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분기는 계절효과와 함께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호황이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대다수 유통업체에서 이같은 호재도 힘을 쓰지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일하게 업황 호전을 전망한 온라인·홈쇼핑(108)은 비대면 쇼핑 강세와 연말 특수 기대감이 겹치며 3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다. 겨울로 접어들며 단가가 높은 상품 주문이 늘 것으로 내다봤으며, 크리스마스 등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그간 소비자의 관심이 덜 했던 상품들

## 3분기 '82'→4분기 '85'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00 못미쳐

### 온라인·홈쇼핑은 유일한 반등...슈퍼마켓은 올해 최저치

도 매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96)도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에 근접했다. 겨울로 접어들며 의류 부문에서 패딩, 코트와 같은 고가 상품의 판매가 매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 백화점 매출을 되살렸던 국가 관측행사가 하반기(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계획돼 있어 기대감을 더했다.

대형마트(54)는 소폭 상승 했지만, 여전히 모든 업태 가운데 가장 저조한 전망치를 보였다. 여름 시즌 동안 식품과 가전에서 매출 증가가 일부 버팀목이 됐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자 발길이 끊겼다. 지난 9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가 연장되는 등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즉시배송 서비스'와 같은 돌과구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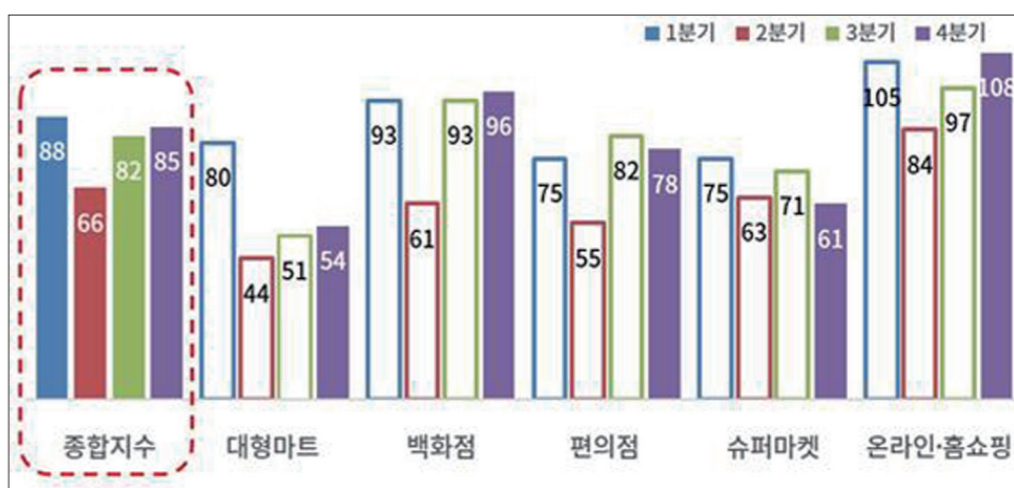
편의점(78)은 지난 분기 여름철 성수기와 더불어 주류(와인) 판매 허용 등 신규 수입원 기대로 전망치도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겨울이 시작되는 4분기는 편의점의 비성수기가 시

작되는 시점으로 매출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 업계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택배·금융 서비스 제공, 디지털용품 판매 등 생활밀착 플랫폼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업태중 가장 큰 낙폭(10p)을 기록한 슈퍼마켓(61)은 2분기 코로나 대규모 확산 때의 수치(63)보다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신선식품에서 당일배송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고 간편식품은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등 경쟁업체에 끼어 있는 구조에서 매출을 진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매유통업체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응 방안으로 '비용절감'(57.6%)을 꼽았다. '대응책 없음'(22.5%)이라 답한 업체가 그 뒤를 이었는데,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 답변률이 높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또는 상품변경'(7.6%), '유동성 확보'(5.0%), '온라인 판매 확대'(2.0%), 등과 같은 경쟁력 확보 노력은 응답이 많지 않았다. 상의는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를 돌파할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유통업계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긴급 경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유통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통업계는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 '세제감면'(34.1%)을 꼽았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유통업계에 큰 버팀목이 된 만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라며 "소비심리의 조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위기상황을 견디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부담금과 규제부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 세계 車판매 회복세 확연...업계 기대감 ↑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9월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자동차업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 집계 따르면, 영국·일본·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9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북미 시장 3국(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9월 신차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 증가했다. 북미 국가별 판매량은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5%, 캐나다가 2% 증가세를 나타냈고, 멕시코는 22.8%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멕시코는 지난 4월 저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다. 서유럽 지역의 9월 신차 판매량은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세다. 영국의 9월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감소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신차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3% 반등했으며, 이탈리아에

서는 10.3% 증가세를 나타냈다. 프랑스의 9월 신차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의 9월 신차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인도는 30% 증가했다.

전년동월비 판매량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였다.

터키의 9월 신차 판매량은 전년동월비 115.8% 증가했다.

터키의 지난해 연간 신차 판매량은 47만 9000대였는데, 올해 9월까지 신차 등록건수가 이미 49만3000대를 돌파하면서, 올해 신차 판매량이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7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9월 글로벌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7400만대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데이터는 국내 시장을 대해서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의 9월 판매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미희기자

## 강진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된다

### 360억 원 사업비 투입, 35만㎡규모로 조성

강진 일반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강진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강진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추가적으로 조성될 산업단지는 기존 성전면 강진산단과 은광폐차장 사이에 위치하며 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5만㎡(산업시설용지 27만㎡) 규모로 조성된다. 약취 등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업종은 제

한하면서 기존 산단과 연계된 기업 및 연구소 시설을 유지해 강진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조 만들 계획이다.

기존 산단이 100% 분양 완료된 후에도 입주업체 및 관련업체로부터 강진군에 공장 입주를 원하는 문의가 잇따라 추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산단 추가조성시 입주 의향을 조사해본 결과 52만㎡의 면적에 11개 업체가 입주하기를 희망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혼자가 편해요"...20대 90.2%가 '혼밥러'

### 이어 혼자서 공부·영화·강의·술·여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혼밥, 혼술에 이어, 혼영(영화관람), 혼공(공연관람), 혼행(여행), 혼소(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20대들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잠코리아와 함께 20대 남녀 2928명을 대상으로 '나홀로족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문에 참여한 20대 응답자 중 88.7%가 '평소 혼밥, 혼영 등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고 답했다.

20대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이 90.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혼공(혼자서 공부하기, 68.9%) ▲혼영(혼자서 영화보기, 53.6%) ▲혼강(혼자서 강의 수강, 50.0%) ▲혼술(혼자서 술마시기, 27.1%) ▲혼행(혼자서 여행하기,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들이 혼밥 등 평소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알바몬X잠코리아 설문조사에서 20대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혼자가 편해서(46.1%)'를 1위에 꼽았다.

다음으로 2위는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31.8%)', 3위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25.5%)'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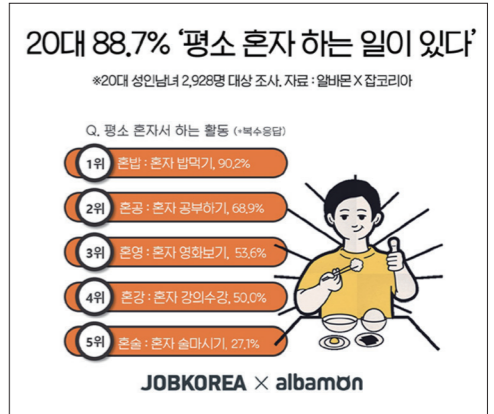
아울러 '혼자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16.7%)', '돈이 덜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16.7%)', '별 이유 없이 그냥(16.3%)',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이 많아서(10.5%)',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자 활동하는 게 안심돼서(9.4%)' 등의 이유가 있었다.

또 앞서 선택한 것들을 혼자 해결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67.0%가 '만족한다. 앞으로도 꼭 혼자 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만족하지 않는다. 함께 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33.0%에 그쳤다.

20대들이 꼽은 '이것만큼은 혼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활동 1위는 ▲공부(42.8%)가 차지했으며, ▲휴식(34.1%) ▲영화 및 공연 관람(18.1%) ▲운동(16.1%) ▲쇼핑(15.7%)이 5위권 안에 올랐다.

이 외에도 ▲산책(12.2%) ▲리포트 및 과제 처리(12.2%) ▲알바(11.9%) ▲여행(7.0%) 등도 혼자 하는 게 더 좋은 활동들로 꼽혔다.

반면 평소 '이것만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



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다. 알바몬X잠코리아 조사 결과 혼자서 하기 싫은 활동 1위로 ▲놀이공원 가기(47.3%)가 꼽혔다.

2위는 ▲생일 보내기(27.8%) 3위는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25.8%)가 각각 올랐으며, 이 외에 ▲1박 이상의 여행(22.7%) ▲어색한 모임에 참석하기(20.6%) ▲모의 면접 등 취업 스테디(13.7%) 등도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다.

알바몬X잠코리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나홀로족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 참여 20대 중 48.0%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원래 나는 나홀로족이다'고 응답한 반면, 34.6%는 '코로나19 이후 어쩔 수 없이 나홀로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 이와 달리 '코로나19 이전, 이후 변화없이 나홀로족이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4%에 그쳤다.

김민정기자

## 광주세계김치축제 “집에서 광주김치를 클릭하세요”

**내달 2~22일 온라인 개최...대통령상 수상자 김장담그기 비법 전수**



광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광주세계김치축제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실외집합행사 대신 안전한 온라인 축제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온라인 축제 특성에 맞게 '집에서 광주김치를 클릭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 공식홈페이지에서 개최된다.

누구나 홈페이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참여하고 대통령상 수상자의 김장담그기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주김치를 구매할 수 있다.

김치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판매하는 '광주김치 랜선마켓', 이색 김치요리 10종 레시피를 유튜브 등에 제공해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김치요리 랜선교실',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비법을 전수하는 '명품김치 랜선특강', 서포터즈를 모집해 김치떡방과 요리활동에 참여하는 '광주김치랜선서포터즈' 등이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특히 변화하는 식습관을 고려해 광주김치랜선마켓에선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재료로만 만드는 '비건김치'와 1인 가구를 위한 '혼밥김치' 등 이색김치 상품을 축제기간 동안 판매한다.

김치로또, 개릴라 초특가, 김치퀴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할인 이벤트는 오는 12일부터 구축될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포터즈도 12일부터 23일까지 축제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본선은 11월13일, 응용요리 경연대회는 11월14일에 남구 입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시는 소비 진작과 국내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이번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남연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한정된 기간 김치센터에서 열린던 김치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더 큰 축제, 더 접근하기 쉬운 축제가 될 것이다"며 "김치 판매액, 참가자의 지역적 범위,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능가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